

03

한·EFTA FTA 발효 7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03. 한·EFTA FTA 발효 7년 교역 동향과 시사점

송경은(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 분석 배경 : 2006년 발효된 EFTA는 우리나라가 추진한 최초의 선진경제체제와의 FTA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발효 7년차에 이르는 한·EFTA FTA의 교역 동향은 선진경제권인 한·EU와 한·미 FTA 이행 방향의 주요 나침반이 된다. 이에 한·EFTA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출입 품목 구성의 변화 분석을 통해 FTA 7년차를 점검한다. 더불어 EFTA 개별 주요국가에서 협정 발효 전후 교역 변화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FTA 활용에 유용한 산업 정보를 제공한다.
- 분석 범위 : 한·EFTA FTA 발효 전후 교역 및 산업변화, EFTA 개별 국가의 FTA 전후 교역의 특징

I. 對EFTA 교역 동향

1) 對EFTA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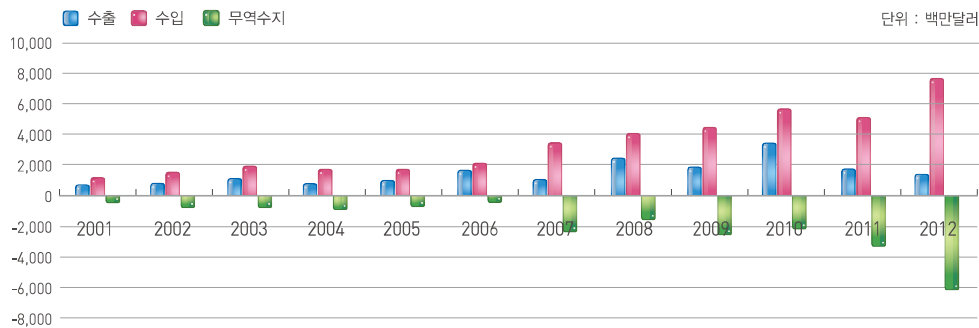
對EFTA 수입 증가, 수출 정체

EFTA 회원국 가운데에는 산유국인 노르웨이가 그 대상이었다.

2012년 말 기준 EFTA⁶⁾는 전체 수출의 0.27%, 수입의 1.5%를 점유하는 비교적 교역량은 적은 국가군이다. 우리나라의 對EFTA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8%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수입은 77.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다. 2012년 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과 EU의 이란지역 석유 금수조치⁷⁾에 따라 이란산 원유, 나프타 등의 수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해당 물품의 수입이 다른 국가로의 대체전환이 되면서 발생한 결과였다.

對EFTA 수출 구조를 MTI 1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박, 자동차 등이 포함된 기계류에 약 86%⁸⁾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형태이며 이는 FTA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수입 역시 기계류가 가장 주된 대상이나 절반 이하의 점유율로 수출보다는 그 집중도가 낮은 수준이다. 이외 광산물, 전자전기 제품, 화학공업제품도 10%이상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한편 對EFTA 교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은 유일하게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 그림 3-1 | 對EFTA 수출입 현황(2001-2012)



6)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으로 서유럽 국가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7)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상국마다 경제제재 조치의 범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8) 최근 3년(2010-2012)평균치 기준

2) 품목군별 수출 동향

對EFTA 수출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집중

(1) 증가품목군 : 기계류 > 화학공업제품 > 잡제품
> 철강금속제품

우리나라의 對EFTA 주요 수출 품목군은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에 집중된 특징을 지닌다(MTI 1단위 기준). 'FTA 발효전' 기계류가 65.8%, 전자전기제품이 14.8%로 전체 수출의 80.6%를 점유하였으며, 'FTA 발효 후'에는 기계류는 81.7%로 그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전자전기제품은 7.6%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⁹⁾

기계류의 對EFTA 수출은 'FTA 발효전'에 비해 'FTA 발효후'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다.¹⁰⁾ 우리나라가 EFTA로 수출하는 기계류 주요 품목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으로 약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對노르웨이 수출이 86%를 점유한다.

| 표 3-1 |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출 증감률 (MTI 1단위)

단위 : 백만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3년 평균 (2003 - 2005)		발효후 6년 평균 (2007 -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3,569	0.3	7,281	0.4
광산물	71942	6.9	32,750	1.6
화학공업제품	21,102	2.0	49,908	2.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40,751	3.9	40,475	2.0
섬유류	25,665	2.4	18,579	0.9
생활용품	13,271	1.3	12,789	0.6
철강금속제품	14,579	1.4	31,427	1.5
기계류	689,648	65.8	1,693,837	81.7
전자전기제품	155,144	14.8	157,905	7.6
잡제품	12,204	1.2	27,555	1.3
합계	1,047,876	100.0	2,072,506	100.0

9) 한·EFTA FTA는 2006년 9월에 발효하여 2006년 수치는 FTA 전후 평균 계산시 제외하였다.

10) 품목군별 수출입동향에서 'FTA 발효전'은 '발효전 3개년 평균치'를 'FTA 발효후'는 'FTA 발효후 6개년 평균치'를 의미한다. 이하 내용에서도 동일하다.

노르웨이로의 선박류 수출은 수주 실적에 따라 해마다 등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은 유조선 등 대형선박을 수출하고 노르웨이는 석유시추선 등 특수선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외 스위스, 아이슬란드 역시 선박의 수주 실적에 따라 수출 실적이 좌우되고 있는 등 각국의 선박 수요와 수주 계약이 주요한 무역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은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로의 편익치적¹¹⁾이 일반화된 상태로 교역 실적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 체결 이후 對EFTA 수출 증가가 두 번째로 높은 품목군은 화학공업제품이다. FTA 발효전보다 1.4배가 증가하였다. 화학공업제품의 주요 수출품목은 정밀화학원료(22.6%), 농약 및 의약품(17.5%), 합성수지(14.7%), 염료 및 안료(14.5%), 기타석유화학제품(10.7%) 등이다. 이 가운데 합성수지와 기타석유화학제품의 對스위스 수출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잡제품은 對EFTA 수출가운데 약 1.3%점유에 불과한 품목군이다. 수출금액은 'FTA 발효전' 12.2백만달러에서 'FTA 발효후' 27.6백만달러로 FTA 이후 약 2.3배 증가하였다.

잡제품의 對EFTA 수출은 70%이상이 '그림'과 '조각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림의 경우 2007년 30.4백만달러에서 2012년 4.0백만달러로 조각품은 6.5백만달러에서 0.9백만달러로 FTA 이후 동 품목의 최근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예술품은 경기가 수요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어, 수출감소 추세는 EU발 경기악화로 현지 한국산 그림의 수입수요의 감소 경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잡제품 가운데 수출증가를 견인한 품목은 귀금속장식품으로 FTA 이후 기존의 관세가 무세화면서 관세 절감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 결과가 시현되었다.

철강금속제품의 對EFTA 수출은 'FTA 발효전'에 비해 'FTA 발효후' 약 2.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나타난다. FTA 발효 1년차인 2007년 철강제품의 수출은 약 33백만달러로 발효 직전년인 2005년 17.5백만달러의 약 2배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이후 철강금속제품의 수출은 감소하여 2012년에는 13.1백만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철강금속제품은 원자재가격 상승, 주택 건설, 설비 투자, 수송 등 기계 장비 제조업, 세계 경기둔화에 영향이 큰 제품으로 최근의 엔저 정책까지 겹쳐 가격경쟁력까지 약화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다.

11) FOC(flag of convenience)라고 하며 선박에 붙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3국가에 선적을 등록하는 제도(두산백과사전)

(2) 감소품목군 : 광산물 > 섬유류 > 생활용품

광산물은 한·EFTA FTA 발효전에는 약 6.9%의 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이었으나 FTA 발효후 1.6%로 수출액과 비중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對EFTA 수출 광산물은 금은 및 백금이 99%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FTA 발효후 금은 및 백금의 수출 급감은 협정발효 직전 달러화 하락에 따라 금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스위스 상업은행으로부터 고순도의 골드바 생산이 가능한 국내업체에 발주한 실적이 반영된 것이었다. FTA 직전에 일시적인 수출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FTA 이후 동 품목에 대해 수출이 감소한 일종의 일시적인 착시효과라 하겠다. 골드바는 FTA 이전에도 이미 무관세 품목이다.

섬유류의 對EFTA 수출은 FTA 발효전 2.4%에서 FTA 발효후 0.9%로 점유율이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FTA 발효후' 기준 의류(40.6%), 기타섬유제품(26.6%)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편직물, 인조장섬유직물, 면직물은 수입이 일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수출액이 연평균 5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에 불과하여 영향이 미미하다.

3) 품목군별 수입 동향

우리나라의 對EFTA 수입 품목은 수출보다는 비교적 산업편중이 낮은 편이다. FTA 발효후 6개년 평균 기계류가 45.1%, 광산물이 15.6%, 전자전기제품 14.5%, 화학공업제품 14.8%로 나타났다. 동 품목군들이 전체 對EFTA 수입의 86.5%를 점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광산물(석유류)은 'FTA 발효전' 12.1%에서 'FTA 발효후' 15.6%로 품목의 점유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한·EU FTA 발효 2년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한·EFTA FTA 발효 이후 수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말 FTA 발효 직전년도인 2005년 대비 약 4.2배 증가하였다. 모든 산업 부문에서 FTA 이후 수입이 증가하였다. 다만 비중이 감소한 품목은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절대적인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1) 증가품목군 : 광산물 > 철강금속제품 > 기계류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광산물은 對EFTA 수입이 급증한 품목이다. 전통적으로 EFTA로부터 수입되는 광산물은 스위스로부터의 금은 및 백금제품이었으나, 2010년 천연가스, 2011년 원유 수입이 시작되면서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등 에너지재는 노르웨이로부터, 금제품은 스위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 표 3-2 | FTA 발효 전후 對EFTA 수입액 및 비중(MTI 1단위)

단위 : 천달러, %

MTI 1단위	발효전 3년 평균 (2003 - 2005)		발효후 6년 평균 (2007 -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물	57,376	3.1	144,350	2.8
광산물	224,976	12.1	799,043	15.6
화학공업제품	275,890	14.8	585,176	11.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2,423	0.7	35,601	0.7
섬유류	21,702	1.2	28,509	0.6
생활용품	15,187	0.8	21,968	0.4
철강금속제품	127,397	6.8	409,941	8.0
기계류	808,833	43.3	2,318,506	45.1
전자전기제품	303,433	16.3	743,441	14.5
잡제품	19,705	1.1	51,477	1.0
합계	1,866,923	100.0	5,138,019	100.0

특히 對스위스 금 수입은 FTA 직후인 2007년 521.6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1196.1% 급증하였다. 당시 국제 금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시기로, 국내 금 수입도 증가추세에 있었다. 게다가 한·EFTA FTA 발효로 기존에 3% 부과하던 관세가 FTA로 무관세화 되면서 스위스로 수입선이 전환되어 수입 증가율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2년에는 노르웨이로부터 원유수입이 전년대비 826.5%로 급증하였다. 이는 EU와 마찬가지로 이란지역 석유 금수조치 등에 의해 초래된 결과이다.

철강금속제품은 對EFTA 수입의 약 8.0%를 점유하는 품목군으로도 129.9백만달러('05년) → 206.8백만달러('07년) → 695.7백만달러('10년) → 364.0('12년)로 수입의 증감을 보이고 있다. 철강제품 중 세부 증가품목은 주단조품, 레일 및 철 구조물, 니켈제품, 알루미늄 등으로 원자재이다. 특히 주단조품(기타주철)의 對노르웨이 수입은 FTA 발효 1년차에 전년 동기대비 305.6%증가하였다. 한편 노르웨이는 한·EFTA FTA 발효 이후 독일산 주철을 수입 대체하는 등 4위 수입국을 상향제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는 가격경쟁력 상승요인이 사라지면서 최근에는 다시 독일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동 품목은 기본세율 8%로 우리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서 관세율 0%를 적용받고 있다.

기계류는 對EFTA 수입의 약 45.1%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품목군이다. FTA 발효이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정밀 기계류는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전문성을 보이는 품목이다. 주요 품목은 원동기 및 펌프, 기타 기계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시계 등이다. 특히 시계수입은 FTA 발효전인 2005년 70.0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383.3백만달러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위스산 시계는 소비재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호되는 품목이다. FTA 이후에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내에서 점유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감소품목군 : 상대적 비중 감소, 전자전기제품·농림수산물

한·EFTA FTA 이후 대부분의 품목군에서 수입이 증가하였다. 전자전기제품,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등은 총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감소한 품목이다. 해당 품목군의 수입증가가 전체 평균적인 수입 확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물은 어류, 기호식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어류의 경우 발효 1년차에 7.0백만달러('07년)에서 104.7백만달러로 무려 14.9배가 증가하였다.

대부분이 노르웨이산 훈제연어, 고등어 TRQ 물량으로 협정 직후 해당 품목의 품질, 맛, 영양가치, 가격경쟁력 확보 등에 의한 선호가 증대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일본의 원전사고 여파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향후 사고로부터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I. EFTA 주요 국가의 FTA 전후 교역 변화

EFTA 회원국은 EU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이다. 2012년 기준 무역액은 노르웨이 52위, 스위스는 68위로서 전체 무역이 큰 규모는 아니다. 다음에서는 EFTA 주요 회원국을 중심으로 FTA 전후 산업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FTA의 세부적인 이행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자 한다.

1) 수출 부문

① 스위스

의약품 중심의 화학공업제품 수출 증가

스위스로의 수출은 한·EFTA FTA 발효전 57.6백만 달러에서('05년)에서 2012년 40.2백만달러로 FTA에도 불구하고 약 17.4백만달러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1,130백만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는 선박류의 일시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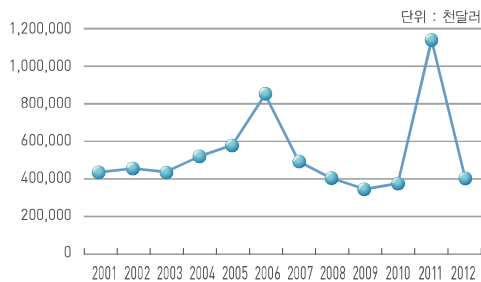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발효 전 3개년과 발효 후 6개년 평균치 비교시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잡제품 등에서 수출증가가 있었다. 이 가운데 화학공업제품은 'FTA 발효전'보다 'FTA 발효후' 2.4배 확대되었다. 스위스 화학공업제품 수출은 FTA 발효 직전년인 2005년 15.9백만달러에서 2012년 42.2억 달러로 약 2.7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위스 수출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및 안료,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등이다(MTI 3 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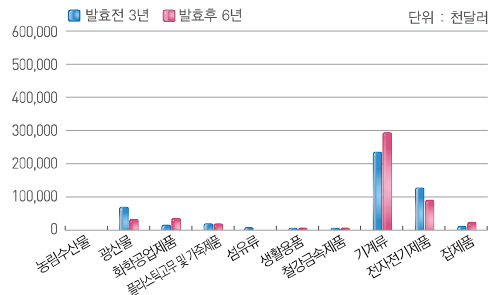
특히 의약품은 최근 3년간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스위스에서의 의약품 시장은 처방약비중이 높으며 특히 자가면역질환치료제, 항암치료제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이 주요 품목이다.¹²⁾

최근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중심으로 복제약품인 제네릭으로 대체되면서 스위스 내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이 보다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제약산업은 특허 만료, 정부의 의약품가격인하 정책 등으로 성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장 변화는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좋은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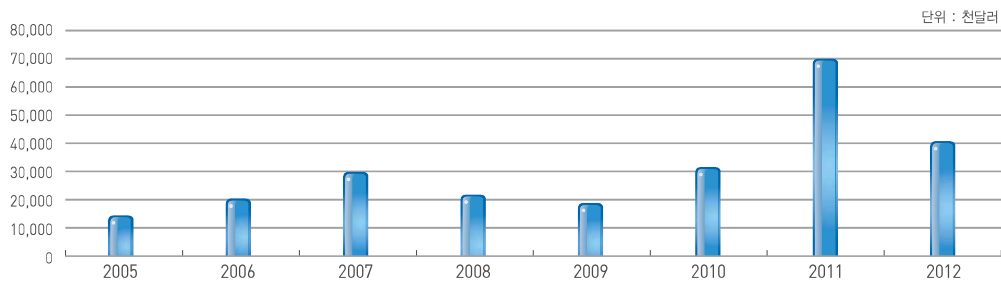
| 그림 3-2 | 스위스 수출(2001-2012)



| 그림 3-3 | 스위스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4 | 화학공업제품 FTA 발효전후 스위스 수출변화(2005-2012)



12) 김한나, 2012년 스위스 의약품시장을 진단하다, 코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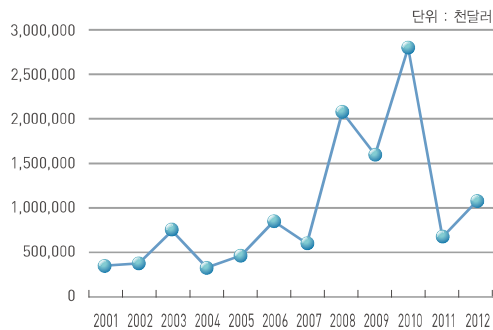
② 노르웨이

기계류 수출증대, 선박류 제외 수출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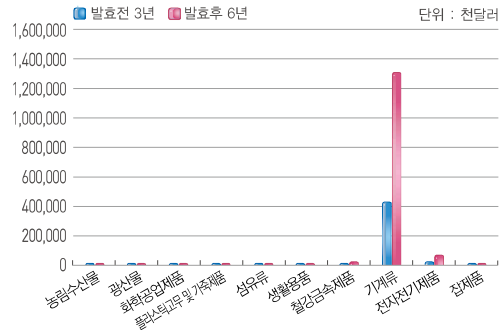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노르웨이 수출은 한·EFTA FTA 전후로 크게 확대되었다. 발효전 468백만달러에서('05년)에서 1,061백만달러('12년)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FTA 발효전’과 ‘FTA 발효후’를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잡제품 등에서의 수출 증가가 있었다. 특히 기계류는 ‘FTA 발효전’보다 ‘FTA 발효후’ 3.1배 확대되었다. 노르웨이 기계류 수출은 2005년 373백만달러, 2010년 2,646백만달러로 7.1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선박류가 포함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자동차, 공구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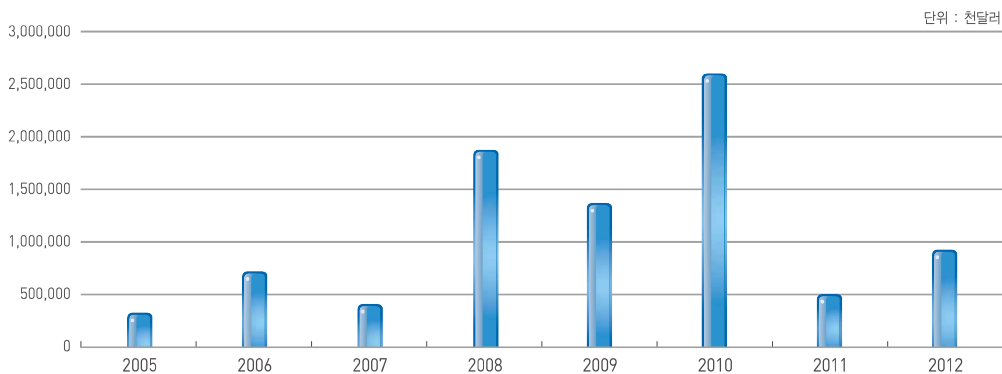
| 그림 3-5 | 노르웨이 수출(2001-2012)



| 그림 3-6 | 노르웨이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7 | 기계류 FTA 발효전후 노르웨이 수출변화(2005-2012)



③ 아이슬란드

오징어 수출 증가

아이슬란드 수출은 FTA 전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FTA 직전해인 2005년 42.4백만달러였던 수출 실적이 FTA 이후인 2007년 오히려 38.4억달러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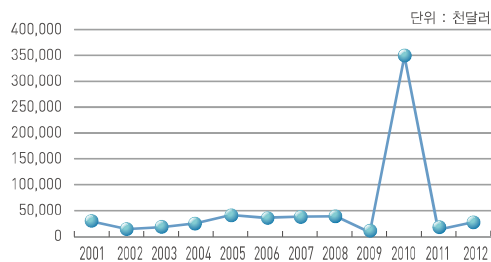
2010년 347.9억달러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선박 수주의 결과로 일시적·불규칙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이슬란드 수출 품목은 기계류가 제1위로 FTA 이후 그 집중도는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 수출이 증가한 품목군은 농림수산물이다.

아이슬란드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품목은 기호식품, 연체동물, 해조류 등이다. 이 가운데 연체동물(오징어)의 수출은 최근 아이슬란드 농림수산물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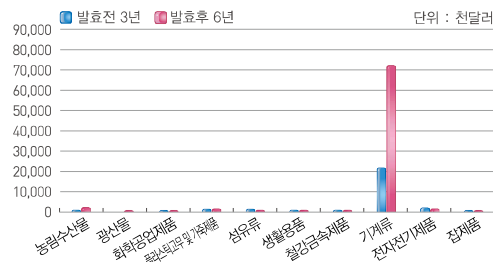
2012년 우리나라의 오징어의 총수출은 115.8백만달러로 이 가운데 3.6%인 4.1백만달러가 아이슬란드로 수출되었다. 우리나라의 오징어 수출은 중국(35.6%), 뉴질랜드(16.2%), 미국(15.8%)로 3개국에 67.5%를 점유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로의 수출액은 7위로 점유율은 낮은 수준이나, EU 내 주요 수산생산지이자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연간 91.1kg으로¹³⁾ 세계 최고수준인 아이슬란드로의 우리 수산물 수출은 향후 세계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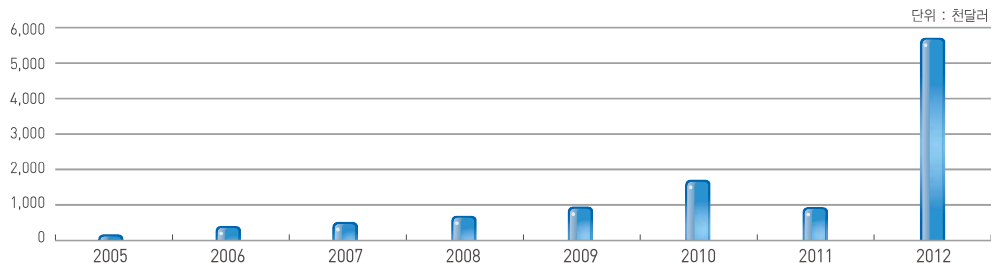
| 그림 3-8 | 아이슬란드 수출(2001-2012)



| 그림 3-9 | 아이슬란드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10 | 농림수산물 FTA 발효전후 아이슬란드 수출변화(2005-2012)



13) FAO(2009)에서 조사한 2003~2005년 평균치이며, 우리나라는 53.4kg이다.

④ 리히텐슈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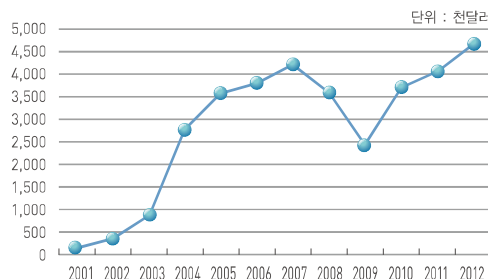
정밀화학원료 수출 증가

對리히텐슈타인 수출은 한·EFTA FTA 전후로 일부 확대되었으나,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FTA 발효 전 3,6백만달러에서(05년)에서 2012년 4,7백만달러로 약 30% 가량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물, 광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등에서의 교역은 미미한 편이다. FTA 이후 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계류 수출은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FTA 전후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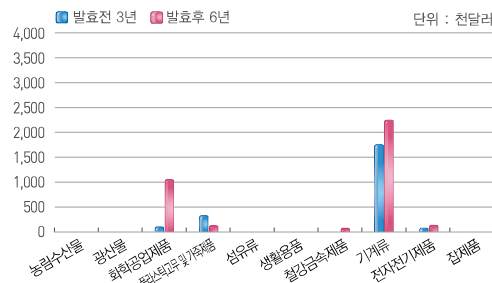
對리히텐슈타인 주요 화학공업제품 수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 연마제품 등이다(MTI 3단위 기준). 정밀화학원료는 2006년 107천달러 수출에서 2012년 1,228천달러로 약 11.5배 증가하였다.

세계 정밀화학시장은 연평균 5.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2조 2천억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정밀화학규모는 선진국 대비 가격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중저가 범용제품 위주로 수출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향후 세계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및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중심 산업으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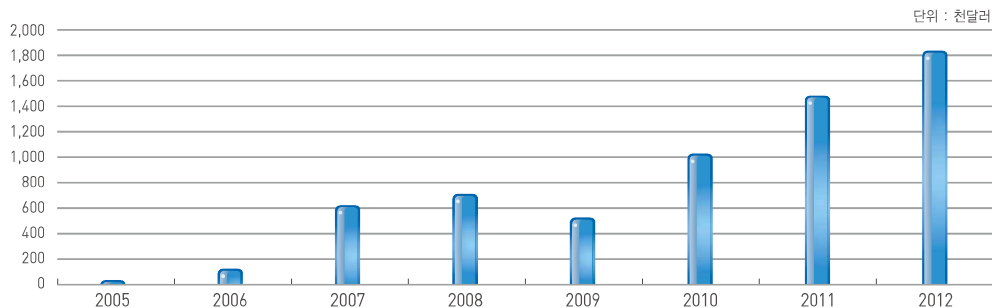
| 그림 3-11 | 對리히텐슈타인 수출(2001-2012)



| 그림 3-12 | 對리히텐슈타인 FTA 발효전후 수출변화



| 그림 3-13 | 화학공업제품 FTA 발효전후 對리히텐슈타인 수출변화(2005-2012)

14) 한국화학연구원(<http://www.kricr.re.kr>), 권영후(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원장) 인터뷰 기사 참고 작성

(2) 수입부문

① 스위스

스위스산 고부가가치 손목 시계 수입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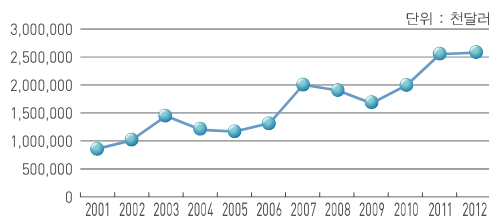
對스위스 수입은 한·EFTA FTA 발효 직전년 11.7억 달러('05년)에서 25.8억달러('12년)로 약 2.2배 이상 증가하였다. 스위스부터의 수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한·EFTA FTA 발효 전 3년 평균 수입은 1,274백만 달러에서 발효 후 6년 평균 2,117백만달러로 약 67%이상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철강금속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에서 수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기계류는 발효 직전년인 2005년에 비해 2012년 465백만달러의 수입액 순증가가 있었다.

기계류의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은 시계이다. 스위스로부터 수입되는 시계는 한·EFTA FTA 발효 직전년도인 2005년 77.6백만달러에서 2012년 383.3백만달러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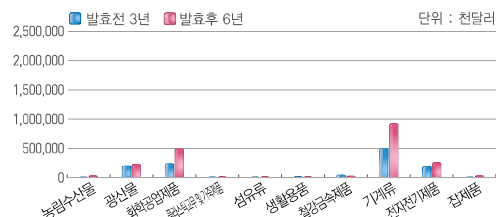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산 시계는 고가 제품으로 기존에도 수입수요가 존재하였던 품목이다. 수입이 증가한 품목은 대부분 손목시계로 나타났다. FTA 이후 손목시계의 기본세율 8%가 즉시 철폐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스위스에는 약 200여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이 있으며, 연간 2500만여개의 시계가 제조되고 있다. 스위스 시계산업은 제약·기계 산업 다음으로 전체 생산제품의 약 95%가 수출되는 등 스위스의 수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¹⁵⁾

품질, 가격 등 경쟁력이 높은 스위스 시계 수입의 증가는 국내에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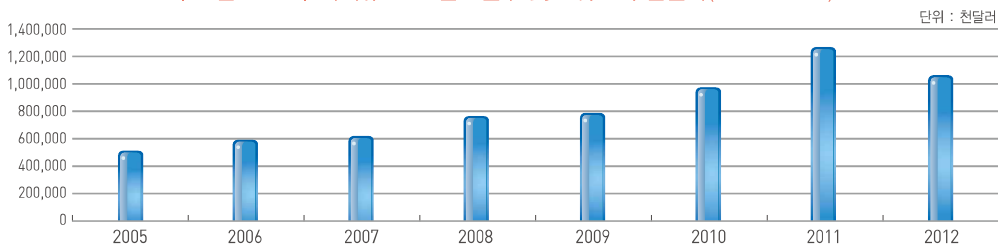
| 그림 3-14 | 對스위스 수입(2001-2012)



| 그림 3-15 | 對스위스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16 | 기계류 FTA 발효전후 對스위스 수입변화(2005-2012)



15) 신순재(2009), 스위스, 손목시계수요 꾸준히 증가세, 코트라

② 노르웨이 FTA 이후 2배 이상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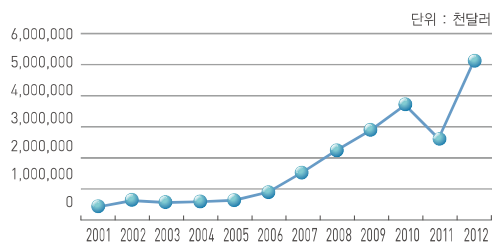
원동기 펌프 등 기계류 수입 증가

우리나라의 對노르웨이 수입은 한·EFTA FTA 이후로 급증하였다. 발효전 468백만달러에서('05년) 2012년 1,061백만달러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FTA 발효전'과 'FTA 발효후'를 비교하면, 산업별로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기계류 등 모든 품목군에서의 수입 증가가 있었다. 특히 기계류는 'FTA 발효전'보다 'FTA 발효후'에 4.1배 확대되었다. 對노르웨이 기계류 수입은 2005년 311백만달러, 2010년 2,088백만달러로 5.7배 증가하였다. 광산물은 2005년 36.2백만달러에서 2012년 2,454백만달러로 무려 89.8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술한 대로 최근 對EU 원유 수입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란제제조치 등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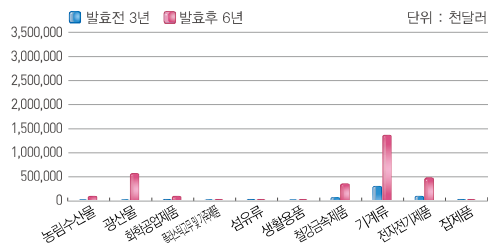
對노르웨이 기계류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은 원동기 및 펌프와 운반하역기계이다(MTI 3단위 기준). 원동기 가운데에서도 액체펌프 수입은 FTA 이전인 '05년 18.6백만달러에서 2012년 153.2백만달러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또한 운반하역기계수입은 2005년 19.5백만달러에서 2010년 338.7백만달러로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82.3억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3년 9월 말까지 252.9백만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노르웨이로부터 수입되는 기계류는 대부분 중장비로서 심해 자원추출 및 항만 화물 운반기술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품목이며, 노르웨이에서 발달한 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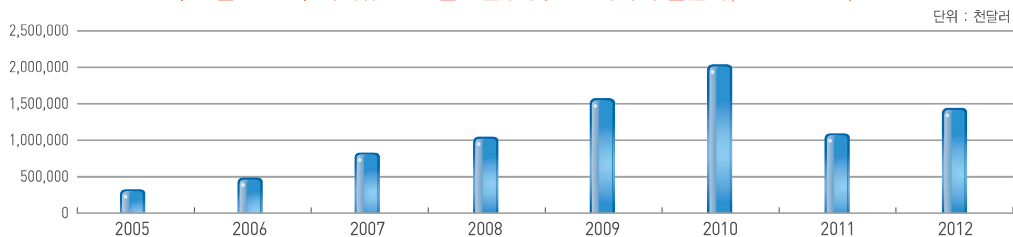
| 그림 3-17 | 對노르웨이 수입(2001-2012)



| 그림 3-18 | 對노르웨이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19 | 기계류 FTA 발효전후 對노르웨이 수입변화(2005-2012)



③ 아이슬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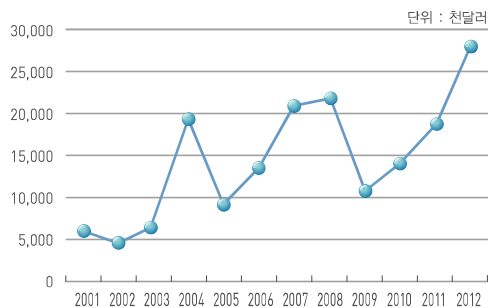
알루미늄 등 철강제품 수입 증가

對아이슬란드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다. FTA 직전해인 2005년 9,1백만달러였던 수입실적이 FTA 이후인 2012년 28,0백만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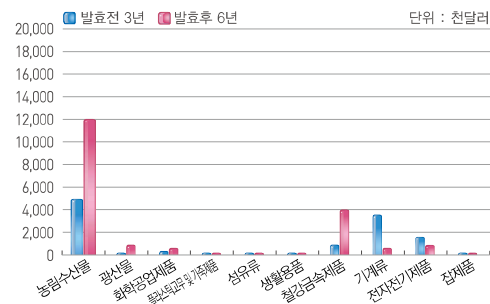
對아이슬란드 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에 제1위로 'FTA 발효후' 총 수입액의 약 62.9%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2012년에 급증한 품목군은 철강금속제품이다. 수입액이 '05년 약 0,3백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11,8백만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對아이슬란드 주요 철강제품 수입품목은 알루미늄, 합금철선 및 고철 등이다. 이 중 2012년 알루미늄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아이슬란드는 어업과 더불어 알루미늄 제련이 주된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알루미늄은 2012년 중국, 일본, 독일, 아이슬란드 등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아이슬란드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알루미늄박은 기본관세 8%가 한·EFTA에 의해 0%를 적용받는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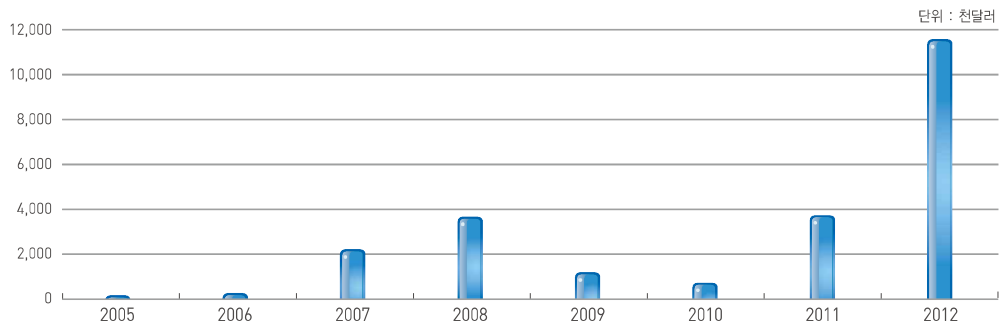
| 그림 3-20 | 對아이슬란드 수입(2001-2012)



| 그림 3-21 | 對아이슬란드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22 | 철강금속제품 FTA 발효전후 對 아이슬란드 수입변화(2005-2012)



④ 리히텐슈타인

의료위생용품(치과용충전제)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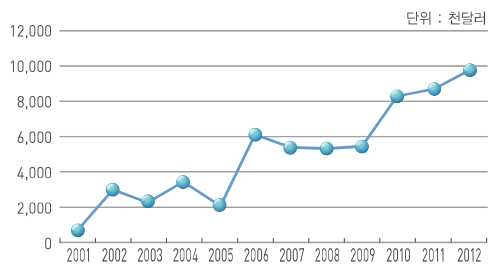
리히텐슈타인 수입은 한·EFTA FTA 전후로 확대 추세를 보이나, 수출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FTA 발효전 2.1백만달러에서('05년)에서 9.9백만달러('12년)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FTA로 인해 무역장벽이 낮아졌고 이것이 무역 확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 화학공업제품, 잡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에서의 수입확대가 있었으며, FTA 이전에 수입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였던 농림수산물, 광산물, 생활용품 등은 신규 품목이 수입되었다. 특히 잡제품은 FTA 이후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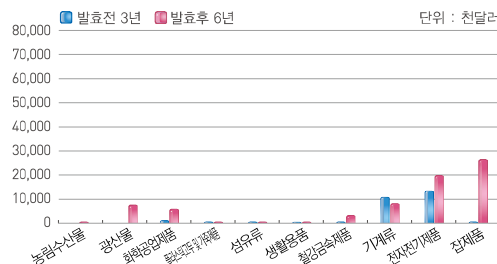
치과용충전제는 우리나라의 리히텐슈타인 주요 수입품목이다. 동 품목은 FTA 발효 이전 수입실적이 0.5백만달러('05년)에 불과하였으나 FTA 발효 이후 3.8백만달러('12년)로 확대되었다. 국내 치과용충전제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리히텐슈타인 수입이 급증하였던 2010~2012년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1.5백만달러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리히텐슈타인 등 FTA 대상국으로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품목의 10대 수입국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FTA 체결국으로 모든 협정에서 기본관세 8%가 동일하게 협정세율 0%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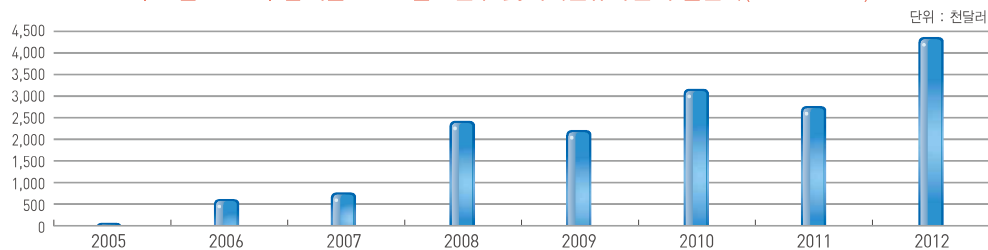
| 그림 3-23 | 리히텐슈타인 수입(2001-2012)



| 그림 3-24 | 리히텐슈타인 FTA 발효전후 수입변화



| 그림 3-25 | 잡제품 FTA 발효전후 리히텐슈타인 수입변화(2005-2012)



III. 한·EFTA FTA 발효 7년과 시사점

1) 한·EFTA FTA 무역의 불규칙성 불구 FTA 이후 수입 증대 효과

한·EFTA FTA는 기존 FTA 평가에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특히 수출면에서는 오히려 전체 금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선박류로 수출금액이 수주실적에 따라 해마다 편차가 높은 불규칙한 특성을 지닌다.

수입 역시 최근 이란제재 이후 노르웨이로부터 원유 수입이 급증하는 등 경제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세부 품목별로는 한·EFTA FTA 발효 이후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된다.

2) 고품질 특화 소비재, 산업용 재화 수입 증가

對EFTA 수입 품목은 정밀 기계, 고가의 소비재, 기호 식품, 정밀화학제품 등이다. 스위스산 시계, 노르웨이산 고등어·훈제 연어, 커피 등은 국내 소비자들이 FTA에 의한 품목 다양화, 국내 시장 공급 확대, 또 일부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품목이다. 이외에도 노르웨이산 펌프, 운반하역기계, 아이슬란드산 알루미늄, 리히텐슈타인산 치과용충전제 등은 국내 수입이 증가한 대표적 산업용 재화이다. 그러나 수입재는 상대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등 기술수준이 높아 단기에 국내산으로 대체는 어려운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對EFTA 수입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FTA 관세 하락에 의한 수입대체 효과

한·EFTA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절감에 의한 가격 경쟁력 강화로 철강금속제품 수입 가운데 일부 품목은 EFTA產으로 대체하는 품목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철은 한·EU FTA가 발효되기 이전시기인 2011년 이전에는 독일產 제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노르웨이產 수입이 증가하였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FTA 국가로 수입이 대체된 사례로 판단된다. 그리고 치과용 충전제의 경우 중국產 수입이 감소하는 대신 리히텐슈타인產 수입이 증가하였다. 두 품목은 모두 기본세율이 8%로 한·EFTA FTA 협정에 의해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產 제품은 0%의 특혜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FTA로 인해 국내 수입선이 변경된 사례이다. 이러한 수입대체는 국내업체의 원가절감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EFTA FTA의 이행 경험, 한·EU, 한·미 FTA 이행에 기여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FTA 협정에 비해 교역량이 비교적 적은 국가이다. 실제 FTA 전후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EFTA FTA는 최초의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EU FTA를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EU FTA는 다시 한·미 FTA의 이행에 전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EFTA FTA의 평가는 선진 경제권과의 선형적 FTA 이행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